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 연구

: 대구 현풍교회 성경공부 사례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송일두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9년 5월

Copyright © 2019 Ildu Song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Parables of Jesus in the Synoptic Gospels
A Case of Bible Study of Hyunpung Church, Daegu, Korea

Ildu Song

Hyunpung Church, Daegu, Korea

This study explains the Kingdom of God and how we can become the people in the Kingdom of God by looking at the Kingdom of God and the parables of Jesus described in the Synoptic gospels. It illustrates how the concept of the Kingdom of God has changed throughout history, what kinds of views scholars had, what the Kingdom of God means in the parables of Jesus and who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which has already come to this world. It also includes a case study to find out how the proclamation of the lessons and the parables of the Kingdom of God affect the members of the church where the author of this study serves as the senior pastor.

Through this study, after learning about the Kingdom of God and how we can become the people of the Kingdom of God, the church members committed themselves to living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When the author first came to the church, the church members were suffering a 10-year long conflict among themselves. The number of the church members had decreased from 300 to 70 due to conflict and dispute. Since the author became the senior pastor, the sermons and bible study about the Kingdom of God has been bringing about healing and restoration of the church over the past year. The number of the church members has grown to 110. Most of the disputes have been

resolved. During a permanent office election, those who used to quarrel with each other miraculously became united and prayed for each other. The author was able to realize that the parable of Jesus,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is truth. In the hope that all the churches in this world will be restored and become the Kingdom of God, the author conducted this study.

국문초록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 연구
대구 현풍교회 성경공부 사례 중심으로

송일두

본 연구는 공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비유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에 따른 학자들의 견해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의 첫 담임목회지에서 겪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과 비유의 선포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포와 그 나라에 들어 갈수 있는 백성에 대한 교우들의 반응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이끌어내고 새롭게 결단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부임 당시 교회는 10년 동안 서로 간의 다툼으로 교회는 어렵고 힘들었고 교인들끼리의 감정 대립은 대단하였다. 300명이 넘었던 교회는 반목과 대립으로 교인 수가 70명으로 줄어드는 어려움도 겪었다. 부임 후 약 1년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교회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부임 당시 70명이었던 성도들이 110명으로 성장하였고 교우들끼리의 반목도 굉장히 많은 해소를 이루었다.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서로 미워하던 교인들끼리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놀라기도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라는 그 선포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본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해 보며 이 논문을 연구 하였다.

목차

| | |
|-------------------------------|------|
| 감사의 글 | viii |
| I. 서론 | 1 |
| 문제 제기 | 1 |
| 연구범위와 방법 | 2 |
| 연구의 기초 | 3 |
| II. 하나님 나라 사상의 역사적 변천과정 | 7 |
|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 | 7 |
| 목시 문학의 하나님 나라 | 12 |
| 랍비 문학의 하나님 나라 | 15 |
| 신약 성서와 하나님 나라 | 16 |
|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하나님 나라 | 18 |
|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 나라 | 23 |
| III.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 27 |
| 하나님 나라와 비유 | 28 |
| 비유의 정의 | 28 |
| 비유의 목적 | 32 |
| 비유의 실례 | 35 |
| 하나님 나라와 교훈 | 45 |

| | |
|--|----|
| IV.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나라의 참 백성 | 55 |
| 하나님 나라의 완성 | 56 |
| 하나님 나라의 백성 | 58 |
| V. 적용하기-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대구 현풍교회 | 62 |
| 적용하기: 대구 현풍교회 | 63 |
|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 교육을 통한 개인의 변화 사례연구 | 66 |
| VI. 결론 | 73 |
| 참고 문헌 | 78 |

감사의 글

먼저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기까지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많은 만남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시간을 주시고 기도로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므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해 주신 감리교 신학대의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병호 박사님과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부를 시작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울산 만평교회 김성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풍교회 담임목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논문을 진행하도록 배려해주신 현풍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협력해 주신 양은수 장로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곁에서 기도와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세 딸 하영, 하진, 하원 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5월

송 일 두

제 I 장

서 론

문제제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나타난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왕이 되어 통치하시며, 그 안에서 구원받은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몰트만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피조물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그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생명과 선함에 동참하게 된다.”¹고 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이며 기초가 된다. 그리고 박화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의 창조물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²고 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세상 속에서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 예수님 통하여 벌써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만물의 새 창조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세상의 옛 질서와

¹ Jurgens Moltmann, *예수그리스도의 길*, 김균진, 김명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147-149.

² 박화경, *하나님 나라를 구현을 위한 기독교교육* (서울: 장신대출판사, 2001), 221.

어둠을 뚫고 전 세계를 새롭게 하며, 육의 세상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계속적으로 확장 되어 가고 있다.³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직시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로 기인한 종말론사상이 교회 안과 밖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가 제기하는 질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과연 교회 안에서 성경읽기와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되고 공유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질문을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상을 기초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결정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확실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 공관복음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장에서 서론과 함께 연구의 기초로 나라($\beta \alpha \sigma \iota \lambda \epsilon \iota \alpha$)라는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해 볼 것이다. II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사상의 근원과 변천을 구약시대, 묵시 문학시대, 랍비 문학, 신약 성서 시대, 예수님 시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

³ 김명용,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247-276.

선포를 통해 개인과 교회의 변화를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VI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다.

연구의 기초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 와 하늘나라(the Kingdom of Heaven)라는 두 어휘는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다. 우선 이 두 어휘에 나타나는 나라(β α σ ι λ ε ι α)라는 표현을 살펴봄으로 두 단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라(β α σ ι λ ε ι α)

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어휘이다. 따라서 언어적 측면에서 이 어휘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은 연구의 정당한 출발이 될 것이다. 보통 바실레이아(나라)는 왕국 또는 백성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신약성서에 나타난 바실레이아(나라)의 의미는 통치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⁴ 이러한 주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람어에서 나라를 뜻하는 말쿠트(malkuth)에서 기인한다. 구스타프 달만은 구약성경과 다른 여러 문헌에서 말쿠트는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상태를 의미했다고 했다. 달만은 “바실레이아는 영토나 백성이 아니며, 그 백성에 대하여 주어진 영토에서 왕으로 통치할 권세임이 명백하다.(눅 12:19) 이와 동일한 용법이 계시록 17:12에서도 나타나고 있다.”⁵고

⁴ George Eldon Ladd,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신성종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84.

⁵ Donald Guthrie,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역*, 이중수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1988), 94.

했다. 따라서 나라를 통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견해이다.⁶

바실레이아가 이렇게 사용된 사례는 신약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만나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을 먼 곳에 갔다고 돌아온 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셨다.⁷ 바실레이아는 세속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을 의미하는 실례가 모두 신약성서에서 발견된다.⁸ 그 예로는 마 4:8의 사탄의 시험 가운데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것과 막6:23의 헤롯이 살로메에게 약속한 것은 통치하고 있는 모든 지역과 그것에 포함된 모든 것을 의미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다 연결시키셨다.⁹

약술하자면 “나라(β α σ ι λ ε ι α)”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즉 주권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다스리는 영토를 포함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주권자의 의도가 “나라(β α σ ι λ ε ι α)”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¹⁰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4회, 마가복음에서 16회, 누가복음에서 32회 사용되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에서만 30회 나타날

⁶ Gustaf Dalman, *The Words of Jesus* (Edinburgh, Scotland: T. and T. Clark, 1902), 94.

⁷ Donald Guthrie,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역*, 이종수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1988), 307.

⁸ Ibid.

⁹ William Barclay, *예수의 사상과 생애*, 정용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68.

¹⁰ Ibid.

뿐이다.¹¹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 선포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¹²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6절,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누가복음 8장 11절과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마태복음과 동일한 비유를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다.¹³ 각 복음서들은 다른 어휘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의미는 동일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19:23-24)¹⁴ 이렇듯 하나님 나라고 하늘나라(천국)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정리하자면 복음서는 말씀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복음서가 읽혀지거나 보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한 표현과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흠어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기 독특한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¹⁵도 다른 어휘를 사용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말하자면 마태가 하나님

¹¹ Ibid.

¹² Martyn Lloyd Jones, *하나님의 나라*, 전의우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8), 51.

¹³ Ladd,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118-119.

¹⁴ Ibid.

¹⁵ Ibid., 27.

나라의 어휘 보다는 하늘나라라는 어휘를 사용한 이유는 그의 복음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¹⁶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선호했다. 또한 유대적 성향이 강한 마태는 하나님 나라대신에 습관적으로 하늘나라를 사용했다¹⁷고 한다. 마가나 누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의 복음서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저술된 것¹⁸이기에 오히려 유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 어휘를 사용했다.¹⁹ 누가가 그 나라라고만 기록하였을 때도 이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²⁰

이상에서 우리는 이 두 어휘의 차이점은 의미의 차이가 아니라 당시의 성서를 기록한 사람의 출신이나, 그 복음서를 누구에게 보낸 것인가가 어휘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게 된다.

¹⁶ Ibid., 53.

¹⁷ George Eldon Ladd, *신약신학* 신성종,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88.

¹⁸ 이상훈, *신약성서 이해의 요점* (서울: 현대사포럼, 2009), 34.

¹⁹ Herman Ridderbos,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솔로몬, 2008), 55.

²⁰ 누가복음 12:32, 22:29.

제 II 장

하나님 나라 사상의 역사적 변천과정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이다.” (마4:17 ;3:2)였다. 하지만 이 선포를 하신 후 과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연설명을 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 매우 익숙한 사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세례 요한을 찾아가 다투어 세례를 받았다.¹ 그러나 후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특징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친숙한 사상이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의미에 있어서 상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살펴보자.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가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이다.(마4:17, 막1:15)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도

¹ Ridderbos,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38.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셨다.(눅4:19,43)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3:3, 5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뒤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생명, 진리, 영생, 빛 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면서 사용되었다.²

조지 픽슬리는 “하나님 나라(바실레이아 투 데우)의 의미Kingdom(왕국)으로 번역되는 바실레이아(왕국, 나라)는 원래 왕의 현존(being), 성질(nature), 또는 형세(state)를 가리키고 있다. 그 후 바실레이아는 점차 왕의 위엄(dignity) 또는 권세(power)를 의미하게 되었고 이것이 발전하여 왕권(kingship) 또는 통치권(royal dominion)을 상징하게 되었다. 바실레이아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의 말코트(나라)의 의미 역시 추상적인 권세, 통치, 지배를 나타내며 나아가 통치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³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점차적으로 주권(sovereignty)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바실레이아는 추상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왕권이나 통치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그 왕권이 미치는 영토와 그 통치를 받는 백성과 모든 소유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픽슬리가 분명히 하듯이 “성경에서 바실레이아(또는 말코트)가 사용될 때,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사용될 때는 왕의 통치 작용이 미치는 영역이나 범주를 뜻하기 보다는 주로 하나님의 왕권이나 주권 또는 통치권을 뜻하고 있다.”⁴ 그러므로 “바실레이아 투

² <http://blog.daum.net/oxhill0215/13518>. (2019.02.03 접속), 수요성경공부-16.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개념.

³ Jorge V. Pixley, *하나님 나라*, 정호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25.

⁴ Ibid.

테우(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흠에 대한 계시, 의와 사랑의 통치,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 파괴된 인간성의 구원과 치유, 죄사함,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마6:10, 눅4:16-21)”⁵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근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사상이다. “(1)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온 우주의 왕이시다.(시47:2, 103:19) (2)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민23:21, 사41:21, 렘8:19) (3)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시145:13) (4) 하나님은 왕으로서 장차 이스라엘에 임하실 것이다.(사40:9-10, 52:7-10)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 역사가 흐름에 따라 더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⁶

그러나 이 언약(covenant)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노아홍수를 거쳐(창6장)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좀더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⁷(창12:1-3)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고 언약을 세우심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왕국을 세우시며 통치하시리라는 사상이 분명해지게 된다. 이 사상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⁵ <http://blog.daum.net/oxhill0215/13518>. (2019.02.03 접속).

⁶ <http://yesu.net/213461>. (2019.03.10 확인).

⁷ <http://blog.daum.net/oxhill0215/13518>. (2019.02.03 접속).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출19:4-6)고 선포하신 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며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증거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인간들을 시험하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며 통치하고 계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므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국가가 되었다.⁸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형이다. 때문에 다윗 왕국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모범적인 모형으로 여긴다.⁹ 이스라엘은 인간의 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하자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삿8:23)고 하였다. 이러한 일은 사무엘의 시대에도 또 다시 일어난다.(삼상7-9장) 그러나 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자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대리자로 권한을 부여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상이 구약 전반에 흐른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체결하시며 죄악 가운데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전혀 새롭게 그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예언을 하셨다. 예레미야 31:31-34에 보면 "3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⁸ <http://blog.naver.com/mokpojsk/130003850446/> (2019.02.01 접속), 이사야 11장 구속사 강해.

⁹ Ibid.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고 하셨다. 이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실현됨으로써, (눅22:20, 고전11:25) 이 땅 위에 그의 나라를 세우셨음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없으나 그 사상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그 하나님 나라는 (1)세계적이며, (2) 종말론적 의미를 갖고 있고, 마지막 날이 있을 것과 영생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으며, (3)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도래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과, (4)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내세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 현재 세상의 통치 질서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구약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 이런 사상은 후기 유대주의 문학에서도 다분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후기 유대주의 문학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비록 구약의 영향을 받았으나 (1) 율법주의적 성경을 떠리며, (2) 극단적인 국수주의적 선민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며(솔로몬의 시편), (3) 초자연적인 우주의 변혁이 있을 것과(The Testament of the Twelve Patriachs), (4) 지상적인 왕국이 완성된 후 전 우주의 구속이 있을 것(Revelation of Barak) 등을 가르치고 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예수님은 여기에 훨씬 새로운 의미를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구약에서의 가르침 그대로이며 여기에 예수님 자신이 해석을 하심을 볼 때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¹⁰ <http://blog.daum.net/oxhill0215/13518>. (2019.02.03 접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회복 될 것이라는 희망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근거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은 묵시문학이 나오게 되었다.

묵시 문학의 하나님 나라

박수암은 “묵시 문학(Apocalyptic Literature)은 대개 기원전 586년 유대왕국의 제 1차 포로시기를 전후하여 생긴 유대민족의 한 문학형태이다. 그것은 특히 어려운 시대에 은밀한 언어와 기괴한 상징들을 사용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려던 문학운동이었다.”¹¹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익명이나 위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자의 신변안전이 보장되었고, 대중에겐 통하나 박해자에게는 통하지 않는 은어와 상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박해자의 반감을 피하면서 대중에게 가장 쉽게 또한 흥미 있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땅의 문제를 하늘의 드라마로 바꾸었기 때문에 정부의 법조문에 저촉되지 않았다.”¹²고 했다. 이렇듯 묵시문학은 유대민족의 질고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승화시켜 표현했던 방식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 역사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박수암이

¹¹ 박수암, *요한계시록*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11.

¹² Ibid., 12.

지적한대로 유대교적 종말론적 요소들이 예언자들의 글에서 발견되는 것이다.¹³

예언자들이 바라본 것은 현재나 가까운 장래의 일이 아니라 위대한 “주의 날” 이었다.¹⁴ 그 날은 개선자로 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세우시게 된다. 그러나 이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될 것이다.(암5:18-20; 습1:14-18) 그리고 “주의 날” 뒤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보편적인 평화와 조화를 구가하는 새로운 황금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사2:2-4; 11:6-9; 미4:1-4)¹⁵ 하나님의 통치의 최종적 완성의 시기 및 성격은 여러 묵시문학자들을 통해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땅 위에서 실현될 황금시대를 기대하였고, 반면 다른 이들은 하늘에 세워질 영원한 나라만을 기대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 나라가 여하한 중재자도 없이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에 의해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 묵시문학들 속에 깔려 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머지않아 온 세계에 미치리라는 확신이다. 그것은 기독교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의 세기들에 일어났던 모든 격변들의 와중에서 믿는 자들이 품었던 소망이었다. 이 소망은 카디쉬의 기도문에 표현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그러하듯 경건한 유대인들이 AD 1세기에 드렸던 이 기도는 다음과 같은 간구로 끝을 맺고 있다.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의 날들 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가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비노라!”¹⁶

¹³ Ibid.

¹⁴ O. E. Evans,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5권 (1982), 1376.

¹⁵ Ibid., 1377.

¹⁶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lrim0342&logNo=30131481022>. (2019.02.03 접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구약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묵시문학의 시기에는 이 어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¹⁷ 묵시문학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생각이 편만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까지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상으로 완성되기에 이르게 된다.¹⁸ 정치적, 종교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등장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유대인의 소망이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대 또는 약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도 변화하게 되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역사 밖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래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던 것이다.¹⁹ 이에 대하여 전경연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국이 지상의 팔레스틴 지역에서 회복되리라는 종래의 사상을 바꾸어 장차 앞으로 다가 올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기에 현실의 점차적인 발전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현실 세계로 도래하는 것이기에 현실 세계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사상의 변화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강대국인 바벨론이나 이집트를 이 세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간주하여 그들과 현실적인 투쟁을 행하던 것을 중단하게 하였다.²⁰

이에 대하여 전경연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나라들은 단순한

¹⁷ Ridderbos,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39.

¹⁸ George Eldon Ladd, *하나님 나라*,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9), 98-99.

¹⁹ Ibid.

²⁰ 전경연 외 4인, *신약성서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77.

침략국이 아니라 영적인 사단에의 조종된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이들을 물리치는 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이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²¹ 물론 이러한 사상이 묵시문학 전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구약시대의 사상을 전통적으로 그대로 담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다윗의 집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묵시서도 있다.

그래서 장홍길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묵시문학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의 사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묵시문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암울한 역사의 현실 속에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²²라고 했던 것이다.

랍비 문학의 하나님 나라

랍비 문서에는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용어는 자주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왕권의 명예를 메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다” 라는 신앙고백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말에 나타날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늘나라’ 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²³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랍비 문서에서 하나님의 왕권 통치사상은 ‘이스라엘백성’ 보다 개인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율법과 관련됨으로써 그 나라는 개인적이고

²¹ Ibid.

²² 장홍길, *하나님 나라와 선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8-39.

²³ Ibid.

윤리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²⁴

유대인들은 매일 신실하게 쉼마를 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를 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혹은 하늘나라)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²⁵ 그리고 ‘하늘나라’ 안에는 종말론적인 사상도 나타난다. 이 세상 끝과 종말론적인 때는 서로 다르다. 세상 끝은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끝 때이고 종말론적인 때는 새 시대가 되는 때이다. 그래서 이 세상 끝 날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 메시아는 다윗 가문의 메시아로서 인간 역사의 절정 때에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다스릴 왕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도구이다. 이 개념은 최후 심판, 부활 등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메시아는 현재의 시대에 속하며 미래의 세계와는 구분되는 존재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자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²⁶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유대교의 묵시문학처럼 랍비 문학은 현재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적인 ‘하늘나라’를 담고 있었다.²⁷ 즉 랍비 문서에는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최종적 권세를 지닌 하나님 나라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²⁸

신약 성서와 하나님 나라

신약성경에서 162회 사용된 ‘나라’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 또는

²⁴ Evans,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1378.

²⁵ 장흥길, *하나님 나라의 선교*, 38-39.

²⁶ Ibid.

²⁷ Ibid.

²⁸ Ibid., 39-40.

“아버지의 나라”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²⁹ 오덕호는 “신약성경 시대의 하나님 나라 이해는, 현재적 하나님의 왕적 통치로서 하나님 나라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게 되는 것이었다. 또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적 통치로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또 기대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에 주로 자리 잡은 것은 역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왕적 통치이며 또 축복된 상태인, 인자 메시아에 의해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였다.”³⁰고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지배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인용에서 감지할 수 있다.

예수 시대와 초기 기독교인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이 많은 유대 백성들 사이에 생생하게 있었다. 추종자들이 올 메시아로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은 두 개의 이러한 거짓 메시아 운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드다(Theuds)가 나타나자 약 400명이 그를 추종하였다. 그러나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져 버렸다. 그 이후 갈릴리의 유다가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도 아래 미혹되었으나 그가 망하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따르면 그를 감금한 로마인 백부장이 바울에게 치근 4,000여 명의 혁명당원들을 선동하여 광야로 나갔던 애굽인인지 아닌지를 물었다.³¹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시기를 알고자 하는 것은 유대교 안에서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만일 메시아 시대가 이미 선포되었다면 그 표징을 알고자했다. 랍비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의 시기를 앞당길

²⁹ Ibid.

³⁰ 오덕호, “주기도문에 나타난 “나라가 임하옵소서” 연구: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용법과 비교하여”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 1986), 22.

³¹ Eduard Lohse, *신약성서배경사*, 박창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9), 161.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메시아는 이미 도래했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렇게 메시아의 징표가 보이지 않아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³²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바로 예수님이 율법공동체가 지향하고 예언자들이 꿈꾸어 온 소망을 실현시킨 분이라고 밝혔던 것이다.³³

예수님 설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임재를 선포하시고 회개를 명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사상이었으며, 이 중심 사상이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기본주제가 되었다.³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3:30에 “그(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요한)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성경말씀을 통해 세례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주의 종들은 겸손하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야 한다는 겸손한 모습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만은 아니다. 세례

³² Ibid., 164.

³³ Ibid., 249.

³⁴ Ridderbos,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56.

요한 자신은 율법으로 이 땅에 온 마지막 존재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함이 마땅하고, 진정한 복음(예수 그리스도)은 이 땅에 영원히 굳게 서야 함을 알려주고자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의 폐지 선언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였다(히10: 9). 이제 구원에 있어서 완전한 복음(예수 그리스도)이 나타났으니, 지금까지 지켜온 불완전한 율법의 존재는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율법이였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요3:29)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했다. 본인의 신분과 자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냄으로 자신을 높이거나 따르지 못하게 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율법이 구원함에 있어 불완전하고 없어질 존재였지만 세례 요한(율법)은 예수(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했다.

성경에 나타난 율법은 이 땅에 복음이 빨리 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바라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복음(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보았고, 그 복음의 소리를 듣는 친구인 율법(세례 요한)은 그 복음 안에서 자기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 오르는 만족한 웃음을 웃지 않을 수 없다. 세례요한의 웃음은 온 인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출현을 예비한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세례를 행하면서 곧 다가 올 일들을 준비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리더보스(H. Ridderbos)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0에 유대인들의 질문-네가 누구냐-에 대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라는 말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된다. 하나는 요한이 자신은 종말적 성취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는 이 땅에 도래 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 나는 그의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고 한 말을 통해서 “오시는 이” 메시아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³⁵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자마자 복음을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선지자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사실상 선구자로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3:30)라는 말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예레미야스(J. Jeremias)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의하며 “왜 공관복음서가 두 사람의 조우를 예수의 세례의 순간으로 압축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긴 어렵지 않다. 그것은 예수와 세례 요한의 동등됨이나 그 보이는 것에 대한 예수의 종속과 같이 보이는 것은 가능한 한 멀리 피한다.”³⁶고 했다. 더 나아가 보름캄(G. Bornkamm)은 “예수와 요한 사이엔 12시와 11시의 차이가 있다. 예수에게는 영원의 변천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예수의 말과 사역에서 일어난다.”³⁷고 하였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당시대의 것으로 한정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앞으로 다가 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³⁵ Ibid., 66.

³⁶ Joachim Jeremias, *신약신학*, 정충하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0), 82.

³⁷ George Eldon Ladd,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태훈 역, (서울: 엠마오 출판사, 1985), 137. 재 인용.

성취되는 것까지를 뜻한다는 것이다.³⁸

여기서 라드(G.Ladd)는 하나님 나라는 목시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 구원³⁹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사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구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막1:15, 눅4:16-21, 마11:2-13. 마가복음1:15 “이르시되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는 이 말씀은 존스가 말하는 것처럼 “짧은 구절로 하나님 나라의 강림에 대해 많은 내용을 전하는 구절을 찾기 어렵다.”⁴⁰ 이 구절에서는 주어 $\acute{o} \kappa \alpha \iota \rho \acute{o} \varsigma$ 와 술어 $\pi \epsilon \pi \lambda \eta \rho \omega \tau \alpha \iota$ 밖에 없고 두 용어 모든 전문적인 신약의 종말론적 용어인데 헬라어에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kappa \alpha \iota \rho \acute{o} \varsigma$ 는 시간의 오랜 기간을 가리키기 보다는 정해진 기간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⁴¹ $\acute{o} \kappa \alpha \iota \rho \acute{o} \varsigma$ 는 성취의 때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한 시간인 것이다. $\pi \epsilon \pi \lambda \eta \rho \omega \tau \alpha \iota$ 도 마찬가지로인데 ‘끝나다’, ‘완성하다’, ‘미치다’, ‘마치다’, ‘성취하다’, ‘차다’의 의미로 종말론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어휘다.

이 어휘는 종말적 사건을 다룰 때 사용되는 어휘인데 “전적”인 뜻으로 사용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막 1:15에 나오는 어휘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순간이 도달했다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마가는

³⁸ Jeremias, *신약신학*, 85-86.

³⁹ George Eldon Ladd, *The Presence of the Future*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84), 138.

⁴⁰ Martyn Lloyd Jones, *하나님의 나라*, 전의우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8), 36.

⁴¹ Hans Conzelmann, *신약 성서신학*, 김철손, 박창환, 안병무 공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26.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준비 단계가 아닌 지금 현재 시작되었으며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살펴 볼 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의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 의미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4:16-21에 나타난 예수님과 요한의 사이에서 구속사적 구분은 이사야 58:6과 61:1-2에서 편집한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김세운은 “이 내용은 구약 중 특별히 종말론적 관심이 팽배한 부분에서 인용한 것인데(사40-66)여기에서 우리는 제2 이사야의 종의 노래의 숨결을 듣는다. 특히 이 구절 중 기름을 붓는다는 개념, 포로로부터의 자유의 개념을 보면 종말론적인 개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끝, 완성, 성취를 가리키는 막1:15의 $\pi \epsilon \pi \lambda \eta \rho \omega \tau \alpha \iota$ 가 적용되므로 이 또한 성취와 종말 개념이 나타나는 것이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는 좋은 소식에 집중되어 있다.”⁴²고 했다.

이것은 바벨론 유수로부터 귀환을 언급하기보다는 포로의 비참함을 겪는 이사야의 비전 속에 묘사된 하나님 자녀들로서 영광의 자유를 모르는 자들을 완전히 해방하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⁴³ 특히 헨데릭센(W.Hendriksen)이 지적하듯이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의 말에서 “이 글”(ἡ γραφή)이 미래의 때에 성취될 것으로 예언되었던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은혜의 해는 성취되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현재

⁴² 김세운, 그 '사람의 아들' (人子) - 하나님의 아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12), 1.

⁴³ George Beasley-Murray. 예수와 하나님 나라,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153.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내게 쉬를 기울이는 지금 그것이 성취되었다.”⁴⁴

마태복음 11:2-13에서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시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물은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하는 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었다. 이점에 대하여 김세운은 “요한이 왜 의문을 품게 되었을까 의문을 갖게 되는데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관점은 요한이 비록 살아있긴 하지만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그는 과거의 인물이다. 그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데 그의 의문은 자기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오심의 상황을 오해한데서 일어났다.”⁴⁵고 설명했다. 이 때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고 하시면서 너희들의 조상이 받았던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으니 하나님 통치의 때가 온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당시 근동 지역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로마는 팔레스타인지역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하지만 위커에 의하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있던 근동지역은 헬라문화에 쉽게 동화되지 않았다. 외형적인 건축물 등은 헬라화 되어 갔지만 내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과 가정제도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여기에 로마의 융화정책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⁴⁴ William Hendriksen, *누가복음주석*, 김유배 역 (서울: 아가페문화사 1989), 361.

⁴⁵ 김세운, *그 '사람의 아들' (人子) - 하나님의 아들*, 2.

일익을 담당하였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문화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항상 긴장과 갈등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기술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헬라 문화가 사유재산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인 반면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는 공납제 생활양식 (a tributary model of production)의 문화로 촌락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상이한 문화의 양식 가운데 이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은 많은 갈등을 하여야 하였다. 무조건적으로 헬라 문화를 이식하고자 하였던 통치자와 전통을 지키려는 유대인들 사이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⁴⁷

그 대표적인 예가 기원전 2 세기 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무리한 개혁을 단행하다가 마카베오 형제와 그의 후계자들이 단합하여 민란을 일으킨 것이다. 또한 때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를 잘 이해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유대인들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⁴⁸

또 하나의 예가 헤롯이다. 정호진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는 무력과 공포로 통치를 하여 부를 축적하는 한편, 큰 성전을 건축 하였기에 유대인들로부터 어느 정도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와 같은 혼란의 시기에 유대인 안에서도 이 혼란에 대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옛세네파 이다. 이들의 지대 한 관심사는 성전 정화에 있었다. 이들은 부당한 사제직에 의하여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단정하고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민족적 생활과 성전 생활을 떠나 공동체 생활을 하며, 기도와 성서 연구에 치중하였다. 이와 같은 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라고 이들은 생각 하였다. 다음은 사두개파 사람들로 이들은 로마와의 타협을 모색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⁴⁶ Williston Walker, *세계기독교회사*, 강근환 외 3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1.

⁴⁷ <http://cjob.co.kr> (2019.01.30 접속).

⁴⁸ Ibid.

이들은 로마에서 파견하는 관리들의 행정적인 조치들을 인정하고 지지하였다. 이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현실 세상으로 오는 것이며, 현실의 이스라엘을 통한 도래였다. 다음은 바리새파 사람들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다.⁴⁹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⁵⁰ 특별히 묵시문학에서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⁵¹ 그래서 페린은 “현실의 역사를 종식 시키고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유대인에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매우 큰 관심과 희망을 표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현실의 역사를 종식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여 현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를 유대인들은 원하고 있었다.”⁵²고 말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의 변천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 이스라엘이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인 신정정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상 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더욱 강조되었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통치는 어느 한 국가만을 그 영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영역으로 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왕정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상이

⁴⁹ Jorge V. Pixley, *하나님 나라*, 정호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92-98.

⁵⁰ Norman Perrin, *예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훈영 역, (서울: 솔로몬, 1995), 113.

⁵¹ Ladd,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98-99.

⁵² Perrin, *예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277-278.

이스라엘 국가의 이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바뀐 사상은 계속하여 전통적인 사상으로 후세에 전달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강성함을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윗 왕조의 몰락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사상에 일대의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은 세상의 인간의 힘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새롭게 인식된 것이다.

제 III 장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있는 나라($\beta \alpha \sigma \iota \lambda \epsilon \iota \alpha$)의 의미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탐구한다는 것은 구약성서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다루어야 할 분량이 많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천국)라는 어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곳만 찾아서 본질적인 의미와, 특히 현실적(비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복음서(공관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어휘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교훈하고, 선포하신 말씀 중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는 세례요한의 “회개하라”의 외침과(3:2), 예수님의 제자들 70인 전도(10:7) 제자들의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자리다툼의 이야기함(18:1)을 빼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모든 어휘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전경연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선포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비유와 교훈과 선포를 행하실 때, 기적을 베풀면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로

나누어진다.”¹ 그러면 이제 공관복음서 곧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나님 나라와 비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비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호는 하나님 나라의 이해에 관한 연구에서 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는 비유에는 계시와 은닉의 기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고 했다.² 하지만 물론 그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단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비유는 비유를 듣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선포하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도록 했다.

비유의 정의

비유란 무엇인가? 전경연은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의 많은 교훈들이 ‘비유’ (parable)라는 문학적 소(小)장르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모든 교훈의 약 1/3이 비유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³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의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에서는 하늘나라의

¹ 전경연, *예수의 비유* (서울: 종로서적, 1984), 5.

² 김성호,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해,” (신학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 23-25.

³ 전경연, *예수의 비유*, 5.

현재성(비종말론적)에서 미래성(종말론적)까지를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다. (씨,가,겨,누,감,진,그) 7가지 비유들 중 농경생활을 소재로 한 것이 셋, 상업적인 것이 둘, 고기잡이 및 일반기사가 각각 하나씩으로 되어 있다.”⁴고 설명했다. 이처럼 천국도 일상생활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실제적인 삶을 암시하고 있다. 또 강병도가 설명하듯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해주는데, 첫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13:3-9)로 제시 되고 있다. 둘째는 가라지 비유(13:24-30)로 이는 이 땅의 교회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함께 섞여 사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셋째 겨자씨 비유(13:31-32)는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천국교회 운동이 외적 측면으로 보여 지고 있다. 누룩 비유로 내적측면이 자라고, 감추어진 보배의 비유(13:44), 진주 비유(13:45-46)로 참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는 자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다. 최후 세상 끝 날에 참 교회의 성도와 세상의 백성들 사이를 완전히 구분 짓게 되는 대 사건이 나타난다. 그것이 그물 비유에서 암시되고 있다.”⁵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선포하신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학자들이 제시하는 비유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들은 비유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⁶

⁴ Ibid., 25.

⁵ 강병도, 마태복음 10-19장, *카리스종합주석 2권*, (서울: 기독지혜사, 2005), 372.

⁶ 비전성경사전 중 마태복음 13장 해설에서

도드(C. H. Dodd)는 비유를 가리켜 “가장 단순한 형태에 있어서 비유는 자연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끌어낸 일종의 ‘은유’ 혹은 ‘직유’이다. 따라서 비유는 생생함과 기이함을 그 특징으로 삼아 청중을 단숨에 사로잡는다.”⁷고 말하였다.

예레미야스(J. Jeremias)는 “예수의 비유는 현대사회에서 그 실례를 찾아보기 힘든 예수 자신의 특수한 대화의 형식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래 형태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비유에서 예수 자신의 직접적인 육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였다.⁸

도나후(J. R. Donahue)는 “예수의 비유는 답을 기다리고 있는 질문이며, 반응을 기다리는 초대장이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비유는 인간의 상상력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은유이며, 놀람과 역설과 자유를 자각하게 하는 일종의 이야기이다.”라고 하였다.⁹

크로싼(J. D. Crossan)은 비유에 대하여 말하기를, “비유는 하나님에게 방을 제공해준다. 비유들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 세계에 대해 강한 충격을 주는 이야기들이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방어력을 제거하여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사로잡아간다. 바로 이러한 비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촉하신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였다.¹⁰

월더(AMOS N. Wilder)는 “비유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생동력 있게 하고, 그들을 어떤 것에 직면하게 한다. 비유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일을 한다. 우리는 예수의 비유에서 기쁨의 순간을 맞이한다. 왜냐하면 예수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역사하고 미래의 약속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수는 비유에서 이 확신을 증거 하여 우리에게 결단과 헌신을 요구한다. 이 결단은 때때로 인내와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고

⁷ Charles Harold Dodd, *The Parable of the Kingdo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1), 16.

⁸ Joachim Jeremias, *The Parable of Jesu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2), 11-22.

⁹ John R. Donahue, *The Gospel in Parabl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1-27.

¹⁰ John Dominic Crossan, *The Dark Interval* (Sonoma: Eagle Books, 1988), 101-105.

말하였다.¹¹

스타인(R. Stein)은 비유에 대하여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기를 “비유는 짧은, 혹은 확대된 비교의 형식을 지닌 언어 형태이다.” 라고 했다.¹²

그리고 스코트(B. B. Scott)는 “비유는 천국이라는 상징과 관련 되어 있는 예수의 짙막한 설화체 이야기이다.” 라고 말했다.¹³

위에서 나열된 학자들의 비유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보면, 첫째,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특징적이고 살아있는 언어유형의 형태라는 점이다. 둘째는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 비유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그 요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일종의 알레고리적인, 또는 이야기의 형태를 통해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독자인 나와 의 만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최갑종은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로 때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 했으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이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울과

¹¹ Amos N. Wilder, *Jesus' Parables and the War of Myths* (Philadelphia: Fortless Press, 1982), 63-87.

¹² Robert H. Stein, *비유해석학*, 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출판사, 1990), 28.

¹³ Ronald B. Scott, *Hear Then the Parable: A Commentary on the Parables of Jesus* (Philadelphia: Fortless Press, 1989), 7-17.

같다.”¹⁴고 했다. 즉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항상 마음에 품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비유의 목적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요소가 되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비유를 즐겨 사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치신 후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최갑중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마태복음 13:10절에서 ‘왜 저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제자들은 비유의 뜻만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를 물어보고 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서의 구조를 보면, 예수께서 좀처럼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13장에 와서 비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비유를 자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¹⁵ 이러한 질문에 예수의 답변은 마태복음 13:11-17에 나온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¹⁴ 최갑중, *예수님의 비유 연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15-21.

¹⁵ Ibid., 22.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¹⁶

즉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주어졌고, 너희들은 더 넉넉하게 가지게 되고, 너희들의 눈과 귀는 보고 들으며,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복된 자이지만, 반면에 저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주어지지 않으며, 저희들은 가진 것도 빼앗겨지고,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할 뿐인 이사야가 예언한 그 완악한 백성들이 라고 말한다.”¹⁷ 이와 같이 예수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기능을 찾을 수 있다. 곧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계시의 기능”과 “저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은닉의 기능”이다.¹⁸

왜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숨기려고 하셨는가?

과연 비유가 비밀을 숨기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근거는 비유가 은닉의 기능과 함께 계시의 기능도 수행하는 것에 둔다. 이 문제에 대하여 스타인은 비유가 계시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감추기 위해 동일한 비유가 사용되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예수의 비유가 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자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비유를 통하여 계시를 볼 수 없다. 이를 통해 계시를 목표로 하는 비유가 오히려 천국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서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저들에게는

¹⁶ 마태복음 13:11-17

¹⁷ Ibid.

¹⁸ 비전성경사전 중 마태복음 13장 해설에서

심판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¹⁹

예수님을 가르침과 교훈과 선포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의 놀라운 방법이 되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선포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는 시대를 초월하여 듣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순종과 믿음,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갈래길에 서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경연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숨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초월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는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오는 세안에 숨어있기에 현실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통치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있는 것이다.”²⁰라고 설명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이미 당시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법이였다. 심오한 의미를 지닌 개념이나 사상을 직접적이 표현이 아니라 간접적 표현을 사용하는 비유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라고 여겨진다.²¹ 비유는 해설 없이 전달하는 마살과 해설을 동반한 님살이라는 형태로 분리된다. 물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셨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듣는 사람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교수법은 당시의 랍비들도 사용하고 있었던 교수법이였다. 이로서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날에

¹⁹ 이한수, *비유와 해석학*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89), 11. 재인용.

²⁰ 전경연, *신약성서신학*, 82.

²¹ 이한수, *비유와 해석학*, 11.

대하여 더욱 친숙하게 가르칠 수 있었다. 이렇듯 비유는 평범하고 친밀한 배경을 통해 진리를 전달하고 바로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였다.²²

예수님의 비유는 랍비들이 사용하였던 비유와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전경연은 “랍비들의 비유가 독립된 하나의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그것과 함께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것이다.”²³고 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숨겨진 의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비유 속의 모든 것들을 파헤치는 알레고리적 해석은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를 파악 하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⁴

비유의 실례

씨 뿌리는 비유(마 13:11, 막 4:11, 눅 8:10)

이 비유는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이다. 이 비유가 가지는 중요성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깨달을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비유이기 때문이다. 이 비유가 기록된 뒤에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은밀히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공관복음서 모두는 기록하고 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4가지의 밭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예레미야스는 “이 비유의 핵심은 헛수고로 보이는 씨 뿌리는 자의 행위가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하나님의 충만을 암시하는

²² Günther Bornkamm, *나사렛 예수*, 강한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68.

²³ 전경연 외 4인, *신약성서신학*, 82.

²⁴ Dodd, *The Parable of the Kingdom*, 87.

것으로 바뀌어져야 한다.”²⁵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충만은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서 다가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윌리엄 레인 (William Lain)도 “예레미야스의 견해에 찬동을 표하면서 이 비유의 핵심은 4가지의 토양이 아니라 농부의 파종 행위에 있다.”²⁶고 말한다. 이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현장에 돌입하여 왔다는 것을 알려주며 또한 하나님의 충만으로 결실할 때가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것에 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씨(마 13:3-4)이다.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어떤 것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라드가 말하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엄청난 큰 재난 후에 강압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와 같이 전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도래를 용납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바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행위인 것이다.”²⁷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이 비유를 통해서도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만 시행 된다는 것이다.

겨자씨 비유(마 13:31, 막 4:30, 눅 13:18), 누룩의 비유(마 13:33, 눅 13:20)

이 두 비유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진리를 전달해준다. 그것은 천국은 마치

²⁵ Jeremias, *The Parables of Jesus*, 119.

²⁶ William. Lain, *마가복음 상(上)* 이상훈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200.

²⁷ Ladd,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134.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는 사실이다. 스타인(Stein)은 이 비유들을 서구적 개념의 성장의 비유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냐하면 헤겔의 철학적 사고로 보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진화론적 발달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확산 되어야 하는 것이 서구의 사상으로는 타당한 것 같으나 이 세계가 경험한 여러 가지 전쟁들과 불일치, 부조화 등은 하나님 나라의 진화론적 발달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비유는 오히려 동양적 사고에서 이해하여야 한다.”²⁸고 말한다. 이 비유의 초점은 처음과 나중의 대비이다. 미비한 출발에 비하여 결과는 엄청나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 가난한 자, 눈 먼 자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밀과 가라지 비유(마 13:24)

이 비유는 예고 없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비유 안에는 두 가지의 씨앗이 하나의 밭에 있고, 후에는 이것이 분리될 것을 보여 준다. 당시의 사람들은 가뭄에 비를 기다리듯 분리를 매우 갈망하고 있었다. 열심당원에게는 로마의 멸망은 분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분리가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은 심판이 이미 임하였고, 마지막 날에 확연한 분리로 나타날 것을 일러 주셨다. 그러나 그 분리는 추수꾼들의 할 일이다. 그래서 신성종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 하였으나 인간의 세계는 아직 와해되지 않았다. 그

²⁸ Robert H. Stein, *An Introduction to the Parables of Jesu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94.

러나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분리되는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며 현재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는 영광 가운데 밝히 드러날 것이다.”²⁹라고 언명했다.

그물 비유(마 13:47)

신성종은 “그물 비유는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의 종류와 그것을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려내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으니” 주석가들은 그물을 교회로 판단했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함께 있지만 심판 날에는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려내시는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했으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당시에는 교회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 군중과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해석은 적합하지가 않다. 그물 비유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비슷해 보이나 종말론적 최후의 심판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는 현실의 세상 속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³⁰라고 했다. 그물이 물속에 내려졌고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들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도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임하는 것 말해주고 있다.

감추인 보화와 귀한 진주의 비유(마 13:44-45)

이 두 가지의 비유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이다.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 어떤 것 보다 먼저 소유해야 하는

²⁹ Ladd, *신약신학*, 신성종, 136.

³⁰ Ibid., 142.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다.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으니” 이 비유에 대하여 예레미아스는 기뻐서 행하는 섬김에 초점이 있다,³¹고 말한다. 그들이 모든 소유를 팔아 밭과 진주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또한 미헬리스는 발견에 중요점을 두고 있다. 예상치 못하던 때에 귀한 것이 제공되었기에 “모든 것을 팔아” 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도드(C.H.Dodd)는 이 비유를 해석하기를 예수는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았다.

이 근본적인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천국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한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리는 “나를 따르라” 는 소리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진주 장사같이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즉각적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³²고 말한다. 이 두 가지의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나 미래성이 명확히 드러나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행한 행동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비유이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막 4:26)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이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림과 같으니” 라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으로 도드(C.H.Dodd)는 3가지로 나누어 말한다.³³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씨와 같이 내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³¹ 전경연, *예수의 비유*, 67.

³² Dodd, *The Parable of the Kingdom*, 87.

³³ *Ibid.*, 87.

그리하여 마침내 인격 전체가 발전으로 변형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는 전체의 성장 과정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점차로 이루는 것이며.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는 수확과 같이 종말론적인 사건이 있으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필수요건이라고 그는 주장 한다.³⁴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잘못되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행위를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비유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과 같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또한 사람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자비롭지 못한 신하의 비유(마 18:23)

이 비유는 다른 비유들 보다 쉽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천국은 마치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를 리네만(Eta Linnemann)은 정의의 명령 안에 자비가 포함되어 있는 자비의 법령으로 해석하고 있다.³⁵ 그에게는 이제 자비가 하나의 율례와 계명이 된 이상 그 아무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게 되었다.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용서 받지 못한다. 자비의 율례와 계명을 어긴 사람은 책임을 피할 수도 없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자는 그 자신의 방만함을 지적 받는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신하는 이 비유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이 비유에서 나타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 또한 이웃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³⁴ Ibid., 141-142.

³⁵ Eta Linnemann, *Parables of Jesus* (London: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1966), 72.

포도원 농부의 비유(마 20:1)

포도원 주인은 하루에 몇 번씩 사람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을까?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상황은 포도원에는 할 일이 많이 있고, 이 일들을 모두 완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일꾼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다. 이 비유의 중심은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나타난다. “천국은 마치 집 주인과 같으니.” 스타인은 “주인의 태도에 대하여 불평을 하고 있는 처음 포도원에 온 농부들과 주인과의 관계에 비유의 초점을 맞추며, 여기서 불평하는 농부들을 유대인으로 보아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희생당하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³⁶

예레미야스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신들의 지식이나 권위를 앞세워 사랑이 없으며 무자비하게 이웃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지적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³⁷라고 했다. 마태복음 19:30에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 당시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혼인잔치의 비유(마 22:2, 눅 14:15)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혼인잔치 비유는 서로 다른 점을

³⁶ Stein, *An Introduction to the Parables of Jesus*, 127.

³⁷ Ibid., 128.

포함하고 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다른 점에 대하여 도드(C.H.Dodd)는 “복음서 저자들이 서로 다른 전승을 추구하기에 같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다른 점이 나타나며 다소의 사상이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비유의 공통적인 것은 초대받은 손님들이 잔치에서 제외되고 그 대신 하층민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³⁸라고 설명했다.

혼인잔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행복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으로 여기게 하였다. 마태와 누가는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잔치를 배설한 사람의 신분이 다르며, 두 번째로 그 잔치를 연 목적이 무엇인가? 대해 견해의 차이를 보이며, 사람을 청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간 곳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택하신 족속들을 불러 모으시는 잔치 자리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기록하였고, 누가는 오직으로 이방인을 위하여 성서를 기록했기에 잔치 자리에 참여할 사람을 불러 오기 위해 멀리 길과 산기슭까지 사람을 보냈었다고 하는 전승을 따르고 있다.

열 처녀의 비유(마 25:1)

이 비유의 중심내용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있지 않다. “천국은 마치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비유에 대하여 도드(C.H.Dodd)는 “마태는 비유의 끝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격언을 첨가하고 있다. ‘그런즉 깨어 있으

³⁸ Dodd, *The Parable of the Kingdom*, 93.

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는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메시아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경고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마태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이다.”³⁹라고 분명히 밝혔다.

열 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할 것을 미련으로, 준비한 것을 지혜로움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미려함과 지혜로움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참석하는 구별로 나타남을 강조했다. 도드는 “이 비유에서 말하는 준비는 예수님의 사역의 실제 과정에서 성장을 위한 준비를 지적한다. 하나님 나라는 미련함과 지혜로움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다.”⁴⁰했다.

달란트의 비유(마 25:14, 눅 19:11)

이 비유는 네러티브의 장면이 나타난다. 자신의 생각이 올바르다고 판단한 좋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이로 인해 좋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인에게 심한 책망과 벌을 받아 쫓겨나게 되는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동시에,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 놓은 주인이 돌아와 회계할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다.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

³⁹ Ibid., 136.

⁴⁰ Dodd, *The Parable of the Kingdom*, 136.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그것을 맡은 종들의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이 비유는 주인의 소유가 현실을 살아가는 종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는 비유이기도 하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눅 21:31)

이 비유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의 일들과 관련된 징조가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국화(國花)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역사와 연결시켜서 종말을 이야기 하나, 이는 이 비유가 가진 특징인 가장 친밀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삶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망각했기에 이런 오류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이 비유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의 진행을 인간에게 맡겨 놓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면서 종말론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양과 염소의 비유(마 25:32)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천국 비유 중 맨 마지막 비유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미래성과 연결되어 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과 염소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선한 짐승과 악한 짐승의 대표성을 지닌 동물이었다. 이 비유에서 우리들이

순전하다고 생각하는 양은 누구인가? 를 예수님께서서는 밝혀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은 그 때의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세 이후로부터 그 때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양으로 선택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과 같이 영광과 권세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임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현실과 미래가 관련이 있음과 동시에 이미 이 땅 위에 도래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의 도래를 포함하고 있다.⁴¹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어휘가 사용되고 있는 비유를 살펴보았다. 특이한 점은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항상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나 물건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행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비유를 전개한다는 특이성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와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시 서기관들의 교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전경연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로의 초대였으며 선포는 종말론적인 메세지이지 묵시문학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⁴²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면 이제 선포된

⁴¹ Jones, *하나님의 나라*, 전의우 역, 41.

⁴² 전경연, *신약성서신학*, 80.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선포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의 선포나 세례 요한의 선포의 선포는 어휘는 같으나 실질적 차이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고 있음을 친히 말씀하시고 있다. “회개하라”라는 말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도래 할 것을 의미하고 또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데, 회개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이며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산상수훈과 하나님 나라(마 5:7)

이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 어휘가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마 5:3, 눅 6:20),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마 5:10),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마 5:19),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의로운 자(마 5:20),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 7:21)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⁴³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여러 가지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는 현실 세계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오는 것을 대망하며 준비함으로 성취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⁴⁴ 이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⁴³ <http://www.yesu.net/213461> (2019.03.10 확인), 하나님 나라 연구.

⁴⁴ Ibid.

어린 아이와 하나님 나라(마 19:14, 막 10:14, 눅 18:16)

이 비유는 뒤에 나오는 부자와 하나님 나라(마 19:23, 막 10:23, 눅 18:18)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공관복음서 모두가 이 두 교훈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다.⁴⁵ 부자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부자는 재물이 많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고 말씀하고 계신다.⁴⁶

물질이 많으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가? 물질이 많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논리라면 이 현실의 세계는 발전과 풍요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아 배고픔의 상태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은 위에 있는 어린 아이와 하나님 나라의 교훈에서 해결된다. 공관복음서 저자들이 이 두 개의 교훈을 대조하여 어린 아이와 부자를 서로 대조하고 있다. 여기서 부자와 어린 아이는 외견상의 부자와 어린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와 대조하기에 적절한 단어는 어른이며, 부자와 대조하기에 적절한 단어는 거지이기 때문이다. 부자와 어린 아이를 대조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세계를 대조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내면적 특성에 대하여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기록된 저자의 의도이다.⁴⁷

이에 대하여 리더보스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겸손함을 갖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야만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교훈은 또한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도래할

⁴⁵ <https://www.cjob.co.kr/christianity/450> (2019.01.15 접속),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⁴⁶ Ibid.

⁴⁷ Ibid.

것을 가르치고 있다.”⁴⁸고 말했다. 이렇듯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영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이 땅에 임하게 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은 선포된 메시지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과 하나님 나라(마 11:11, 눅 7:28)

예수님은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재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분입니까?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메시아의 주권적 통치가 일어나고 있으며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비교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현실 세계로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자가 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 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된다는 것이다.

바리새인의 물음과 하나님 나라(눅 17:20)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

⁴⁸ Ridderbos,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128.

대한 답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속서에 대하여 심오한 설명을 제공해 주셨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물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깔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 답변하셨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바리새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과 묵시문학의 지식적인 배경 아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바리새인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택하여 나라를 세운 후에 영토를 확장해 가는 제국주의적 입장으로 이해하였고 나라를 세울 그 지역은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왕권을 의미하지만 공간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교훈을 통해 나타난다. 그 통치는 사람의 마음속을 주관하기에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 세대에 임한다. 예수님은 이미 이와 같은 왕권의 통치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신다.⁴⁹

세상의 일과 하나님 나라(눅 9:60-62)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하고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지내야 하니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그 요청을 거절하셨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⁵⁰

또한 가족과의 작별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⁴⁹ <https://www.cjob.co.kr/christianity/450> (2019.01.15 접속),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⁵⁰ <http://www.yesu.net/213461> (2019.03.10 확인), 하나님 나라 연구.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신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함께 그 중의 하나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⁵¹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천하에 생명보다 귀한 일은 없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이 생명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일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

유월절과 하나님 나라(막 14:23, 눅 22:16,18)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며, 유월절에 식사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 속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잘못된 것이다.⁵²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 의한 주관적 성취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교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월절 식사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야 한다.⁵³ 때문에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종말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임하는 성격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⁵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뜻한 단어가 예수님의 교훈과 함께 사용된 사례들을

⁵¹ <https://www.cjob.co.kr/christianity/450>.

⁵² <http://www.yesu.net/213461>.

⁵³ Ibid.

⁵⁴ <https://www.cjob.co.kr/christianity/450>.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비유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하게 현재성과 미래성 모두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임한 하나님 나라는 구약시대의 예언의 성취이며,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대에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와 이적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선포하신 비유와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것을 앞의 내용들에서 알아보았다. 풀러(Reginald H. Fuller)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와 천국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이적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어가 이적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곳은 부분만 한 곳만 있다. 마태복음 12:28과 누가복음 11:20에서 보여진다. 이 부분을 통하여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이적이 하나님 나라 의 이적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인식하고 계셨다.”⁵⁵고 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복음서에 여러 사건으로 나타나 있다. 악한 마귀를 내쫓으시고, 한센 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시며, 성난 물결을 잔잔하게도 하셨으며, 물 위를 걸었고,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등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일들은 이성적인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일일까? 질문을 던지지만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는 크게 생각해 볼만 한 일은 아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권능으로 이런 일을

⁵⁵ Reginald H. Fuller, *이적-성서적 이해*, 진연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40-42.

행하느냐? 라고 말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적은 자연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주권 행사로 초대 교회는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겼다⁵⁶ 누가복음은 실제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과 연결하여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에서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으로 기록하고 있다. 베헤(Otto Betz)는 “예수님의 귀신축출 현상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징조(proxy)로서의 행동이다.”⁵⁷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적의 사건이 복음의 선포행위와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곳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인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 실 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적을 같이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에 대해 감정적인 놀라움과 두려움을 기대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천국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당한 사람은 즉시 결단을 하해 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공생애 시작 첫 선포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와 같은 교훈이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도시를 향해

⁵⁶ Ibid., 53.

⁵⁷ Otto Betz, *What do We know about Jesus?* (London: S.C.M.Press, 1969), 61.

책망하시는 성경말씀에서도 볼 수 있다. 화가 있을찢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찢저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 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 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마11:21)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보게 된다. 그 비밀은 이적을 행하고 나서 이적을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지는 것을 금하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시는 것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것에 의문을 가진 브레데 (William Wrede)는 “메시아의 비밀”⁵⁸ 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의 비밀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개인의 창작으로 브레데는 규정을 짓고 있으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의 통치를 처음부터 가지고 행동하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중적인 모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인격을 만나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⁵⁹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적 영광으로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기에 전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⁵⁸ William. Wrede, *The Messianic Secret* J. C. Geig 역 (Greenwood: The Attic Press, 1971), 9-150.

⁵⁹ R. McI Wilson, *Mark in Peake's Community on the Bible* (London: Nelson, 1962), 801.

이적과 연결시켜서 살펴보았다. 이적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위에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하라는 가르침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적을 통해 병을 고치시거나 이적만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개인적으로 임하는 주관적 임재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행위를 하든지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을 통해 예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

제 IV 장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나라의 참 백성

라드(George E. Ladd)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역사에 들어온 하나님의 다스림이었다. 또한 그 다스림은 이 시대의 종말에 다시 드러나서 메시아의 구원을 완성으로 이끌게 될 것이었다.”¹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은 감람산 설교를 사용하셨다. 라드가 말하듯이 “감람산 강론에서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예상과 종말론적 완성이 서로 역동적인 긴장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선포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러한 역사와 종말론 사이의 선지자적 긴장이 새롭고 더 역동적인 형태로 회복되었다.”²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라드가 설명하는 것처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미리 역사 속으로 침입하여 죄와 사망의 옛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들을 가져다준다. 사람들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축복들을 경험함으로써 그런 악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³

¹ George Eldon Ladd, *하나님 나라*, 신성중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9), 591-597.

² Ibid.

³ Ibid.

그리고 라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종말론적 완성체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참 백성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알아야 한다.”⁴고 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고, 오직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은 이 땅의 삶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라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과 그의 공생애 사역 안에서 인간의 현세적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⁵라고 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이에 대해 라드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의 미래관에는 세 가지 본질적인 요인이 있다. 역사적 안목과 묵시론적 완성과 종말의 임박성에 대한 강조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감람산 강론에서 가장 생생히 드러난다.”⁶고 했다.

공관복음서는 모두 인자가 영광 중에 임하여 그의 택한 자들을 모으실 묵시론적 완성의 때에 대하여 말씀한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구약적인

⁴ Ibid.

⁵ Ibid.

⁶ Ibid.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어휘로 말하고 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기 전 어둠의 세력의 출현과 사람들이 큰 두려움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막13:14-20; 마24:15-22). 그와 달리 누가복음 21:20-24에 나타난 동일한 기록은 마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함락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역사적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 마가복음 13:1-4에 나타난 종말론 강론은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 이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 13:4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의 질문에 나타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는 성전 파괴의 의미보다는 종말의 완성을 선포하고 있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명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그들의 관심사가 성전 파괴와 현재 시대의 종말을 말하고 있다면 감람산에서 선포하신 강론이 또 다른 모습의 형태로 종말론적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감람산 강론에서는 예루살렘 폐망과 성전의 파괴 사건이라는 현재적이고 역사적 사건과 다가올 종말론의 완성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섞여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감람산 강론은 현재적 역사적 사건과 종말론적 사건들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말하고 있다.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감람산 강론은 두 가지 요소인 현재적 종말과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이루는 긴장관계 속에 있다.

라드는 “감람산 설교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사명을 주는 것이다(막13:10; 마24:14). 또한 여기에는 종말의 임박함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경고하고 있다. 종말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기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논의에 있어서 예수님의 미래관에 대한 복음서의 보도에 나타나는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종말의 묵시론적 성격과 그

임박함이었다. 이에 대해 네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어왔다.”⁷고 설명했다.

첫째는 예수의 교훈에는 두 가지 요인이 다 들어있고 그의 두 주장이 다 잘못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철저 종말론이다. 둘째는 묵시론적 성취와 그 임박함을 예수님의 교훈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셋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종말론이 감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은 거부하는 것이다. 넷째는 종말에 대한 기대를 긴장 관계 속에 두는 선지자적 안목에서 그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중에 넷째가 이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여 준다고 생각한다. 성경의 종말론 전체의 특징은 종말에 대한 기대에 나타나는 임박성과 연기 사이의 긴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기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종말론적 실제적인 모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나타내심으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인 제자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선포는 무엇보다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마태복음 15: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에서

⁷ Ibid., 579-587.

⁸ Ibid.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선포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임을 말씀하고 계신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이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선포와 교훈의 대상이 결코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의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만 거느리셨지 어떤 특정 집단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행동조차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모두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로 그들을 회개시켜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역의 한계가 없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심지어는 사마리아에서도 사역하셨다. 이처럼 예수는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다. 또한 그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베푸셨다. 당시 유대교 전반적으로 흐르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죄인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기대되었던 것에 반해, 예수는 그들과 사귀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고, 그들이야말로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마 21:31 말씀에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울레와 계명으로 그들의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사죄의 은총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베푸셨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참

백성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 받았던 민족, 이스라엘은 결국 맞이하게 될 파멸을 스스로 자초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임을 예수는 내다보셨다. 예수께서는 파멸된 이스라엘의 자리에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새롭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마태복음 21:28-22:14에 연이어 나타나는 세 비유를 통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⁹

첫 번째로 마 21:28-32 나타난 두 아들 비유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로는 마 21:33-44에 나타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메시야로 영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제외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방의 백성들에게 그 열매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은 혈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과 믿음으로만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마 22:1-14에서 보여주는 세 번째는 결혼 비유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에 청함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선포하는 자들에 대해 잘못된 반응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청함을 받은 자들의 초청을 거절하므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졌었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비유를 통해

⁹ Ibid.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도 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척하는 일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게 되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르침과 교훈과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초청에 응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¹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를 예수님 앞에서 포기해야 한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긴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¹⁰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성서 유니온 선교회, 2005), 310-318.

제 V 장

적용하기-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대구 현풍교회

조병호 박사는 그의 저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히브리 장자들의 목숨을 건졌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대속되었습니다.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길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양에서부터 시작된 나라이다.¹ 둘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 천하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해주셨다.²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주셨다.³ 넷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¹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220.

² Ibid.

³ Ibid., 221.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더 이상 성전의 성소와 대제사장만이 들어 갈 수 있는 지성소의 구분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린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000년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모두 종료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한 제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⁴ 다섯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제사장 나라가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였다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이다. 이는 성전이 교회로, 그리고 장자가 제자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⁵

이와 같은 배경 지식으로 현풍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를, 주일 예배 말씀과 성경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기 전과 가르치고 난 이후에 대해서 성도들이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를 설문해 보았다. 프로젝트의 진행의 질문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적용하기: 대구 현풍교회

본 연구자는 2018년 4월부터 12주간 그리고 월부터 12주간 매주 2회에 걸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를 가르쳤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2018년도부터 9월부터 시작해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를 선포했다. 주일 예배시간에 출석하는 장년 출석 성도들의 숫자는 110명이다.

⁴ Ibid.

⁵ Ibid.

그리고 장년을 따라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20명 정도 된다. 주 교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가 주로 사용 되었다.

그리고 작년 4월에서 시작해서 12주간, 9월에 시작해서 12주간, 금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성경 공부반을 개설했다. 시간은 오전 반 10시 00분에 시작해서 1시간-1시간 30분, 저녁 반은 8시-9시까지 1시간 시간 정도로 진행했다. 주 교재는 조병호의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의 하나님 나라를 사용했고, 시청각 자료를 따로 만들어 사용했다. 그 결과 두 번에 걸쳐 12주간씩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성경공부를 잘 마무리를 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 매주 물었다. 그 결과 지금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과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함께 공부했던 성도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하여 점심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한 식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이 모든 것들은 목회자의 지시나 계획이 아니었고 함께 공부했던 이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어 자발적으로 진행한 일이었다. 6개월 동안 장년 110명, 아이들 20명, 성경 공부반 오전 반 10명, 오후반 10명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공부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그 이유는 주일 낮 예배시간에 참여하는 성도 130명은 설교를 통해 설명은 해 줄 수 있으나, 질문을 하거나 지식에 전달이 잘 되었는지 체크를 하기가 어렵다.

성경 공부반에서는 출석체크, 숙제검사, 학습 습득 정도 등을 점검해서 학습 참여자에게 잘 전달하려고 애를 썼으나 과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비유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나타낼 수 있을지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은 성경공부 마지막 시간에 오전에 한 번 저녁 마지막 시간에 한 번 실시했다. 그리고 3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후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설문했다.

1. 당신의 나이는?
2. 이전에 성경 공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공부를 해 보셨습니까?
3.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4.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기 전에 기대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5. 이전에 했던 성경 공부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6.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며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7.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8.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이에게도 이야기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9. 설명해 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까?
11.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 공부하고 난 이후에 나의 삶(개인, 가정, 교회, 사회)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 교육을 통한 개인의 변화 사례 연구

여기에 기록된 이들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례를 본 연구 논문에 기재한다는 부분은 허락을 받았기에 사례 연구 내용만을 기록하도록 한다. 우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 교육을 통한 개인의 변화 사례는 매우 많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 교육을 통한 개인의 변화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변화 사례와 달리 이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큰 수고가 없이도 본인 스스로가 즉각적으로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례1)

올해 74세인 ○○○ 씨는 두 아들과 딸을 하나 둔 어머니이자, 교회에서는 권사 직분자였고 은퇴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 돈이 되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했다. 그래서 돈 문제로 주위의 사람들과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심지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과 돈 문제로 다투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든 사람이었다고 자신의 모습을 회상한다. 그녀는 어려운 가정에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썼고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을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 쳤지만 젊어서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남편과 사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교회였고 예수님이었다. 그는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져야 했기에 아등바등 살았다. 교회도 다니고 권사 직분도 받아서 나름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다. 그러나 연세가 많아 져고 성경공부 시간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된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를 늘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고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던 물질을 하나님 전에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늦게나마 그는 권사로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매우 헌신적이며 못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려는 신앙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올해 3월 초에 갑자기 소천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을 때 그녀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냥 인간적인 열심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과거를 회상하시던 권사님의 모습이 생생하다. 성경을 잘 몰랐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이 땅에서 복 받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그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교회를 찾고 기도하던 모습이 이 글을 쓰면서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가정도 건강해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둘째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은 것이라는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나게 한다.

사례2)

올해 53세인 ○○○ 씨는 아들 둘이 있다. 교회의 가장 오래 된 집안의 자녀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 장로가 되었다. 그는 젊은 시절을 교회에서 보내며 자라났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린 나이에 장로가 되었다. 장로가 되어서 장로로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매김하고 싶었다. 그래서 목회자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슨 일을 하면 사사건건 방해했다. 결국은 목회자를 쫓아내는 일에 앞장을 서고 결국은 목회자를 쫓아 내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했다. 교인들을 선동하고 교인들의 당을 만들어서 목회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다니는 다른 교인들도 자신의 일을 반대를 하거나 충고를 하면 그들도 교회에서 쫓아내었다. 하나님도 교회도 성도도 안중에 없었다. 그는

성경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덕분에 성경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연합회 활동, 장로회 활동 등으로 외부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었다. 교회를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일들을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그는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막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교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듣는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왔었다. 그러 그가 성경공부 반에 나와서 성경공부를 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들었다. 그리고 조금씩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 교회를 쉬고 있던 아들이 교회를 나오고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다, 아내 된 집사는 이번 향존직 선거에서 권사로 피택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래는 현풍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와 질문의 내용이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천국에 대해 가르치기 전의 설문지

전체 설문대상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성인70명, 아이 20명 총 90명

설문지) 2018년 9월 16일 주일 낮 예배 후

| | | | | | | |
|-------------------------------------|--------|--------|--------|--------|--------|-------|
| 교회 출석하고 있는 설문 대상의 연령대는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 | | | | | |
| 60세 이상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20세 이상 | 10세 이상 | 0세 이상 |
| 23명 | 20명 | 20명 | 7명 | 10명 | 10명 | 5명 |
| 질문1)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들어보았다. | | | | | | |

| | | | |
|--|-----------|-------------|----------|
| 그렇다 | 못 들었다. | 금시초문이다. | |
| 85 | 5 | | |
| 10대 이상 모두 | 0세 이상 | | |
| 질문2)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들어보았는데 그 내용을 안다. | | | |
| 그렇다 | 조금 그렇다 | 들었으나 잘 모른다. | 잘 모른다 |
| 50명 | 15명 | 15명 | 10명 |
| 질문3)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가? | | | |
| 그렇다 | 조금 그렇다 | 설명하기 곤란하다. | 알기만 한다 |
| 12명 | 53명 | 17명 | 8명 |
| 질문4)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임하다)했는가? | | | |
| 이 땅에 | 하나님이 계신 곳 | 그 어딘가에 | 설명하기 곤란함 |
| 5명 | 65명 | 17명 | 13명 |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천국에 대해 성경공부와 설교를 들은 후, 약 1년 사이에 40명 정도 교회가 성장을 했다.

전체 설문대상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성인110명, 아이 20명 총 130명

설문지) 2019년 3월 10일 주일 낮 예배 후

| | | | | | | |
|-------------------------------------|--------|--------|--------|--------|--------|-------|
| 교회 출석하고 있는 설문 대상의 연령대는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 | | | | | |
| 60세 이상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20세 이상 | 10세 이상 | 0세 이상 |
| 43명 | 30명 | 20명 | 7명 | 15명 | 10명 | 5명 |
| 질문1)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들어보았다. | | | | | | |

| | | | |
|--|-----------|-------------|----------|
| 그렇다 | 못 들었다. | 금지초문이다. | |
| 130 | | | |
| 10대 이상 모두 | 0세 이상 | | |
| 질문2)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들어보았는데 그 내용을 안다. | | | |
| 그렇다 | 조금 그렇다 | 들었으나 잘 모른다. | 잘 모른다 |
| 100명 | 15명 | 15명 | |
| 질문3)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가? | | | |
| 그렇다 | 조금 그렇다 | 설명하기 곤란하다 | 알기만 한다 |
| 25명 | 93명 | 17명 | 5명 |
| 질문4)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임하다)했는가? | | | |
| 이 땅에 | 하나님이 계신 곳 | 그 어딘가에 | 설명하기 곤란함 |
| 105명 | 15명 | 10명 | |

우리는 일주일에 예배를 최소한 열 번을 드린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많은 예배 시간을 통해 그 많은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만큼 변화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 설교 속에 예수님의 비유처럼 말씀이 감추어져서 그럴까? 아니면 잘 알아듣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설교를 못 들어서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기대만큼 변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았지만 잘 못 안 것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몰라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많이들 믿고 고백한다. 하지만 정작 성경을 모르고 있다. 물론 설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대하셨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성경 말씀 그대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천국에 대해서 안다고 말한다. 문제는 그 안다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을 남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프로젝트가 진행된 교회는 116년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다. 116년 역사 속에서 목회자의 평균 시무 연수가 3년이다. 그것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갔다. “내 나라”와 “내 의” 를 구하는 삶을 구하는 교회 안에서 힘이 있는 자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되었을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방해 했을까? 지금은 주변의 교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힘을 가졌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영향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착각은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오늘날 많은 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축복이다. 현재의 축복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이다. 간혹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보인다 해도, 그것은 내세의 복을 위한 것일 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목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 VI 장

결 론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연구하면서 천지만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창조하셨고 주권적으로 통치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았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론을 제각각 내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 분별하는 일이 우선적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성경에 나타난 어느 한 부분을 택하기 보다는 통전적인 부분에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어휘 속에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역사가 변하기에 처음 시작할 때 주어진 의미들이 현실적인 요소로 많이 변색이 되어있지만 본질적 의미를 다시 발견하여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비유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하여 다양한 풀이와 암시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다. 아주 간단명료하고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특징만을 전달해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의 예수님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가진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다. 여러 개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통전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 분분하였으나 근래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과 미래성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치 속에서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어휘가 구약성서와는 단절되어 있다는 예수님의 새로운 어휘라고 하는 주장들은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현실성의 해석이 되든지 미래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토대로 전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객관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인간의 선택이나 노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셔서 현세에 하나님 나라를 보내시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에서는 이것이 이 세대의 종말을 의미하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재 하는 것을 의미하며, 악의 세력이 모두 끊어지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훼방 세력이었던 모든 것들이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는 일이기에 그 때와 그 시기를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 속에 징조가 있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느끼게 해 준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의 견해에서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각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뜻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시며, 가르치시며,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씀하시며, 권능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 사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객관적인 하나님 나라가 온 것만으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객관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함께 주관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인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삶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라면 주관적인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객관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함을 인정하며 따르는 것을 말한다. 주관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의 견해 위에 서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의 견해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의 견해에서 주관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의 견해의 주관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객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관적인 관점에서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주관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강제적으로 임하는 객관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는 다르다. 이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동과 언어는 바로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것이었다. 기적을 베풀 때에도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으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존경의 마음과 호기심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주관적 임재로 초대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었음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로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초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비유와 교훈과 기적은 같은 통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며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유의 인격적 만남에 대해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전해 들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하였다. 여러 이유 중 3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묵시문학의 배경 속에서 받아 들였던 장차 다가 올 큰 권세와 함께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속에 이미 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 할 때에 그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선민사상의 생각에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한 하나님 나라는 도리어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인 가난 한자, 억눌린 자, 눈먼 자, 포로 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는 유대인들만이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선포 하셨기에 유전을 중시하며, 기득권적 우월감인 선민사상을 가졌었던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셋째로 위의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받으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무성하게 남발되고 있다. 특히 날짜와 시간까지 정하여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때 임한다고 해서 사회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본질을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종말론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이 성경말씀을 통하여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르는 일인 것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얽매여 자기 나름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 지금의 시대에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자신과 그 사역 안에서 인간의 역사를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의 적극적인 다스림이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이 시대의 종말에 다시 드러나서 메시아의 구원을 완성으로 이끌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누가 될 것인지 이미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장로의 유전을 따라 기득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나라에 관심을 가졌었던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오래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조금 더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내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른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천국에 대한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회개하라” 고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어린 양의 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심어질 때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다워지고 새로워질 것이다. 성도들에게 “축복” 이라는 단어를 가르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목회자 이 땅에 많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만이 들어 갈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 볼 때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고 당시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친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와 세상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 문헌

외국어서적

Amos, N. Wilder. *Jesus' Parables and the War of Myths*. Philadelphia: Fortless Press, 1982.

Charles, Harold Dodd. *The Parable of the Kingdo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1.

Eta, Linnemann. *Parables of Jesus*. London: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1966.

Gustaf, Dalman. *The Words of Jesus*. Edinburgh, Scotland: T. and T. Clark, 1902.

George, Eldon Ladd. *The Presence of the Future*. Grand Rapids: Eerdmans Pub, 1984.

Joachim, Jeremias. *The Parable of Jesu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2.

John, R. Donahue. *The Gospel in Parables*. Philadelphia: Fortless Press, 1988.

John, Dominic Crossan. *The Dark Interval*. Sonoma: Eagle Books, 1988.

Otto, Betz. *What do We know about Jesus?*. London: S.C.M.Press, 1969.

Reginald H. Fuller. *Interpreting the Miracles*. London: S.C.M Press, 1963.

Robert, H. Stein. *An Introduction to the Parables of Jesu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Ronald B. Scott. *Hear Then the Parable: A Commentary on the Parables of Jesus*. Philadelphia: Fortless Press, 1989.

Robert, H. Stein. *The Method of Jesus Teaching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8.

번역서적

Donald, Guthrie.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역*. 이중수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1988.

Eduard, Lohse. *신약성서배경사*. 박창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9.

George, Beasley-Murray. *예수와 하나님 나라*.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George, Eldon Ladd. *신약신학* 신성종.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George, Eldon Ladd.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태훈 역. 서울: 엠마오 출판사, 1985.

George, Eldon Ladd. *하나님 나라*.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9.

George, Eldon Ladd.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신성종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Günther, Bornkamm. *나사렛 예수*. 강한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Hans, Conzelmann. *신약 성서신학*. 김철손, 박창환, 안병무 공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Herman, Ridderbos.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솔로몬, 2008.

Joachim, Jeremias. *신약신학*. 정충하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0.

Jorge, V. Pixley. *하나님 나라*. 정호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Jurgen, Moltmann. *예수그리스도의 길*. 김균진, 김명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Martyn, Lloyd Jones. *하나님의 나라*. 전의우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8.
- Norman, Perrin. *예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훈영 역. 서울: 솔로몬, 1995.
- Reginald, H. Fuller. *이적-성서적 이해*. 진연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Robert, H. Stein. *비유해석학*. 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출판사, 1990.
- William, Barclay. *예수의 사상과 생애*, 정용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William, Hendriksen. *누가복음주석*. 김유배 역. 서울: 아가페문화사, 1989.
- William, Lain. *마가복음 상(上)*. 이상훈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William, Wrede. *The Messianic Secret*. J. C. Geig 역. Greenwood: The Attic Press, 1971.
- Williston, Walker. *세계기독교회사*. 강근환 외 3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한국어서적

- 강병도. *마태복음 10-19장, 카리스종합주석 2권*, 서울: 기독지혜사, 2005.
- 김세윤. *그 '사람의 아들' (人子) - 하나님의 아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12.
- 김명용.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 박수암. *요한계시록*.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 박화경. *하나님 나라를 구현을 위한 기독교교육*. 서울: 장신대출판사, 2001.
-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성서 유니온 선교회, 2005.
- 이상훈. *신약성서 이해의 요점*. 서울: 현대사포럼, 2009.
- 이한수. *비유와 해석학*.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89.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장흥길. *하나님 나라와 선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전경연 외 4인. *신약성서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전경연. *예수의 비유*. 서울: 종로서적, 1984.

최갑종. *예수님의 비유 연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논문, 사전

O, E. Evans.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5권 1982, 1376.

김성호.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해”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

오덕호. “주기도문에 나타난 “나라가 임하옵소서” 연구: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용법과 비교하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 1986.

웹사이트

<https://www.cjob.co.kr/christianity/450>

<http://blog.daum.net/oxhill10215/13518>

<http://blog.naver.com/mokpojsk/13000385044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lrim0342&logNo=30131481022>

<http://www.yesu.net/213461>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Ildu Song

Place and Date of Birth: Namhae-gun, South Korea, December 24, 1970

Parent`s Names: Sungwung Song and Sunyea Park

EDUCATIONAL INSTITUTIONS

| <u>School (Name and Address)</u> | | <u>Degree</u> | <u>Date</u> |
|----------------------------------|--|---------------|-----------------|
| Secondary: | Namhae Haesung High School 8-4, Nammyeon-ro 1835beon-gil, Nam-myeon, Namhae-gun, Gyeongsangnam-do, South Korea | Diploma | Feb 10, 1989 |
| Collegiate: |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26, Bonghoe 1-gil, jilyang-eup, Gyeongsan-si, Gyeongsangbuk-do, <u>South Korea</u> | B.A | Feb 18, 2000 |
| Graduate: |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26, Bonghoe 1-gil, jilyang-eup, Gyeongsan-si, Gyeongsangbuk-do, <u>South Korea</u> | M. Div | Feb 14, 2008 |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Ildu Song

Name typed

April 8, 2019

Date